

## 노동시장의 새로운 국면, 청년실업자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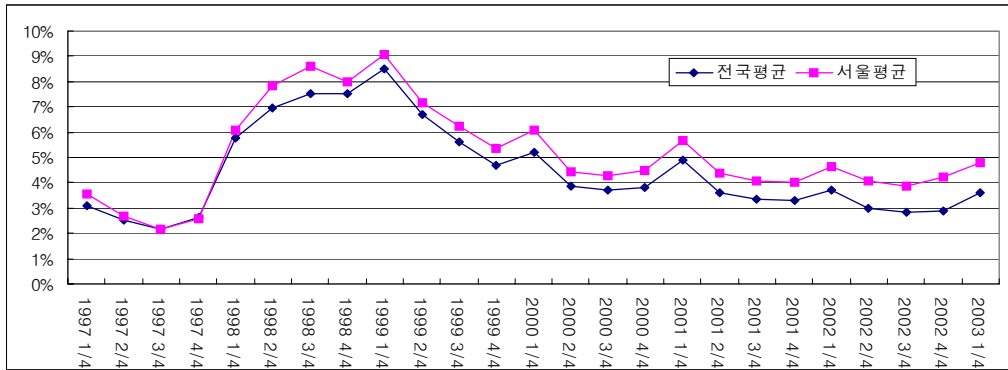
### 청년실업자, 왜 이제서야 문제시되는가?

- IMF위기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청년실업자의 만성화를 초래
  - IMF위기 이후 노동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채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청년실업률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가 신규채용위주에서 경력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 청년실업률의 만성화가 문제시되기 시작함
  - 청년실업자의 만성화 현상은 극단적인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포기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청년실업률은 OECD의 기준에 의하면 15~24세의 실업률로 정의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사회진출시기가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29세의 실업률을 사용함

### 서울시 실업률의 현황

-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평균을 상회
  - 서울시 실업률은 IMF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에 9.1%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3/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그림 1)
  -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90년대 후반 약 0.5~0.7%포인트에서 2002년 2/4분기 이후 1%포인트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전국실업률과 서울실업률의 추이

○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IMF위기 수준으로 근접

- 2003년 1/4분기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9.5%로 서울시 전체 실업률 4.8%의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9%로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을 대변
- 청년실업률은 '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3/4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와 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신규채용시장의 위축으로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하여, 최근에 IMF위기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음

[표 1]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97	'98	'99	'00	'01	'02. 2/4	'02. 3/4	'02. 4/4	'03. 1/4
청년실업자(A)	74	168	147	108	110	102	96	106	126
청년실업률	4.8	11.9	10.5	7.7	8.1	7.7	7.5	8.3	9.5
전체실업자(B)	136	365	335	236	224	204	192	211	238
전체실업률	2.7	7.6	7.0	4.8	4.5	4.1	3.8	4.2	4.8
A/B	54.4	46.0	43.9	45.8	49.1	50.0	50.0	50.2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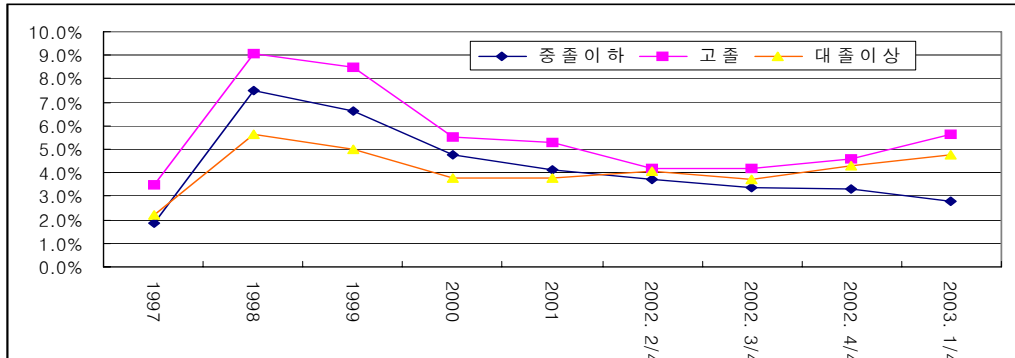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시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중졸이하의 실업률은 IMF위기 이후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졸 및 대졸이상 실업률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2002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됨

- 고졸자의 실업률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23.0%, '01년 27.7%, '03년 1/4분기 39.5%로 나타나 고학력실업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서울시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 청년실업증가의 구조적 원인

- 공급측면 : 고학력노동자의 양적 증가 및 전공과 직업과의 불일치
  - 전국의 대졸이상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는 1996년 30만 명에서 2002년 43만 명으로 약 13만 명 증가함. 이중 약 39%가 수도권에서 양성됨
  -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2000년 취업자와 취업경험자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정도는 33.2%에 불과한 반면 39.9%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잦은 이직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이는 취업자보다 취업경험자의 불일치정도가 더 높은 것에서도 확인됨

[표 2] 서울시 취업자 및 취업경험자의 학력별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단위: %)

	매우 일치	일치	보통	관계없음	전혀 관계없음
전 체	12.3 (10.3)	20.9 (19.0)	26.9 (23.8)	21.7 (26.5)	18.2 (20.4)
취 업 자	13.5 (11.6)	21.5 (19.7)	25.2 (22.5)	21.0 (25.4)	18.8 (20.8)
취업경험자	8.7 (6.4)	19.2 (16.6)	31.6 (28.0)	24.0 (29.9)	16.5 (19.1)

자료: 통계청, 「2000 사회통계조사 교육부문」, 20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국치

○ 수요측면 : 노동수요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2003)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30대 대기업·공기업·금융산업 등 신규 졸업자가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주요 기업집단의 일자리가 '97~'01년 사이에 약 29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주요 기업집단의 채용구성을 보면 1996년 신규졸업자 65%, 경력자 35%를 차지하였던 것이 IMF위기 이후 구성비가 반전되어 2001년 신규졸업자 26%, 경력자 74%로 역전됨. 이러한 경력자에 대한 우선채용관행은 신규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음

[표 3] 서울시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청년층 인구		2,899	2,852 (-1.6)	2,794 (-2.0)	2,739 (-2.0)	2,644 (-3.5)	2,533 (-4.2)
청년층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	1,481	1,246 (-15.9)	1,256 (0.8)	1,294 (3.0)	1,255 (-3.0)	1,206 (-3.9)
	실업자	74	168	147	108	110	105
	계	1,555	1,414	1,402	1,402	1,364	1,3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 1998년 IMF위기의 여파와 이후 2년간 경기 회복에 의한 취업자 증가를 제외한 최근시기에는 청년인구의 감소율이 취업자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를 보임. 이는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감소현상이 인구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청년실업의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분야와 창업에 대한 지원확대

- 취업효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IT관련 서비스업, 디지털미디어산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육성하여 신규고용창출을 유도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2001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2002)에 의하면 청년구직자의 앞으로 계획은 취직(52.3%), 개인사업 및 창업(14.6%),

휴식(7.6%)순으로 나타남.

-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프로그램 확충을 적극적으로 모색
- 직업교육의 다변화 및 비정규직 활용의 극대화, 취업정보의 양성화
  - 청년층 실업자의 선호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직종의 다변화를 모색
  - 인턴취업지원제도를 확대·시행하여 신규졸업자의 직장체험성격으로서 경력을 쌓게 하여 실업기간을 줄이게 해야 함
  - 장기적으로 학교별·전공별 취업률을 조사 공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이를 검토한 후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가 졸업자의 인력수급에 대한 자율적인 시장 조절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서울시 차원의 대응

- 직업전문학교의 수요 지향적 주문식 직업교육의 활성화 모색
  - 직업교육의 실무 지향적 요소와 현장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 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협력·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
  - 청년층의 선호직종 및 취업유망직종을 개발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훈련과정의 활성화 모색
- 구인·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보완하는데 주력
  -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은행을 각 지역대학의 취업지원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실시
- 서울시 자체적인 인턴공무원제 확대·도입하여 직장체험으로서 경력을 쌓게 하는 것이 필요
- 창업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졸업자 및 취업 경험자에 대한 청년기업가 양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신용보증체계의 구축필요

이한일 · 서울시경 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